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2013년10월 발행 (제 42호)

발행: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시지 '주의 날의 재앙' 예레미야

◎증 '교회 선택' E3

◎알림 코너 '계시록 세미나'

< 권두메세지 >

'주의 날의 재앙' by 예레미야

오늘은 '주의 날의 재앙' 을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주의 날' 으로 불리는 재앙의 날이 도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데살로니가후서 5:2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5:3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너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

주의 날은 이 성경구절로 비추어 볼 때 '돌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멸망을 동반하는 무시무시한 날인 듯 합니다. 자 그럼, 이 날에 관해 우리들의 의문은, 주의 날에 망하는 것은 대체 누구인가? 주의 날의 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일 것입니다.

< 주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의 재앙의 날 >

이 질문과 관련하여 위의 데살로니가의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즉 신약의 하

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행하여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말씀입니다.

5: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에서는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에게 바울은 "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들처럼 너희를 덮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주의 날의 재앙은, 어둠 속 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도적과 같이 덮치는 것임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래와 같이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5: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5: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5: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
되

5: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홍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5: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
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 구절은 바울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
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며 빛과 진리 안에서 걷고, 죄로부터 해방된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죄의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굶아가
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본
받지 말라며 “그러니 다른 사람처럼 잠들어 있지 말
고 깨어나, 정숙한 행동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어둠을 걷는 그리스도인에 관해 바
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노하심에 이르기 하심을 하심
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주의 날 하나님의 노
하심이란, 그와 같은 어둠을 걷는, 즉 변함없이 죄 안
을 계속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벌이 내려질 것임
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눈이란 하나님이 노하심의눈이니, 그
노하심은 어둠의 자식, 즉 여전히 죄 안에서 행동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타오르는 이러한 주의
날에 대한 대전제를 이해합시다.

< 배도와 주의 날 >

게다가 주의 날은 배도, 즉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처럼 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하와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
하리니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송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
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
하리니”라고 말하고 주의 날과 배도, 나아가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
다. 그렇습니다, 마치 더러운 방과 바퀴벌레가 관계
있는 것처럼 이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의 날이 교회에도래하는
그 이유는 종말의 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규모 배
도가 원인임을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의 날을 알기 쉽게 말하자면, 교회붕괴의 날로서 그
붕괴의 주역은 적그리스도이며 교회 안에서 신으로
군림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 실행됩니다. 이처럼, 이
들은 매우 주의 날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은 일부러 주의 날과 관련하여, ‘배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파트모스의 요한

주의 날의 재앙 by 예레미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주의 날에 대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와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종말을 향하고 교회의 미래는 밝은데, 이 환난을 앞두고 영광 속에 산다는 근거 없는 교리를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종말을 앞두고 교회의 배교는 진행될 것이며, 그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서 교회 붕괴의 날이 적그리스도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현상은 성경이 말하는 배교의 현상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배교의 필두 교회, 천주교는 교황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터무니 없는 배도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충실 한 개신교는 이러한 모독에 반대하는 목소리 중 하나조차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주의 날>

주의 날에 대해 구약성경에 여러 기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바냐서에서의 주의 날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이 장에는 7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주의 날은 가깝다."라고 주의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주의 날에 관한 구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바냐서 1:2 ~ 1:18 절을 차례로 보며 주의 날에 대해 알아보시다.

스바냐 1:2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3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위 2절, 그리고 3절에도 '지면'에서 모든 것을 멸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계시록에도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다. 거룩하고 진실한 주여, 언제까지 심판을 행하지 않고 땅의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요한 계시록 6:10

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땅에 산다는 것은, 지상의 나그네, 행인이었다, 아브라함과는 반대의 존재, 즉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에 물든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 날,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습니다.

1:4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아 있는 것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한다

이날 주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서기 70년에 성취되어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로마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이 멸망 당한 이유는 그들의 배교로 인한 것이며,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의 날의 성취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끝에 다시 주의 날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주의 날에 일어나는 일도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배교의 재현이며, 종말의 날에 교회는 배도하고 그 결과 주님의 날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붕괴하며,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의 날에 배교 그리스도 살인을 재현하는 것은 종말 예언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의 날에 배도하고 그리스도 죽이기가 재현되는 것은 요한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일입니다.

"계시록 11: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주의 날의 재앙 by 예레미야

여기에서 쓰여진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큰 도시"는 종말의 날의 배교의 교회이며, 여기서 그리스도 죽이기, 즉 성령 모독이 재현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5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1:6 여호와를 배반하고 좃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라

하늘의 만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비유를 든 표현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 땅의 모래에 비유되기 때문에 하늘의 만상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생식기숭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사람의 생시기인, 교황과 빌리 그레이엄의 말을 우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1:7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한 마리의 짐승은, 종말의 날로 짐승화(獸化)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종말의 날에 짐승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날 짐승화한 교회는 심판 되어지지만, "주로 초대된 사람을 성별(聖別)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성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 축복을 받습니다.

1:8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외국의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은 비유를 포함한 표현입니다. 세상과 이방인의 가르침을 도입한 교회를 가

리킨다 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교회는 적극적 사교, 카운셀링, 야베스의 기도 등 많은 세상과 이방인 기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날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임을 알아둡시다.

1:9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궤홀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신의 주인집을.. 속이기에 능한 자"는 환란 전 이던 2 단계휴거 이던 한 번 구원 받으면 결코 심판 받지 않는다, 등 성경에 없는 속임수의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1:12 그 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끼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주님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는다."는 바로 지금의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마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배도의 교회에 대해 무서운 심판이 내질 것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나쁜 무서운 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곧 도래합니다.

1:13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주의 날의 재앙 by 예레미야

집은 교회의 비유입니다. 그 날 하나님의 집,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지배, 횡포 속에서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자리에서 쫓겨나 대신에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몰아 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는 계시록에 있는 대로, "어린 양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1:14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보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1:15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16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성벽이 있는 성읍은 그리스도 교회의 각 교단의 비유인 것일까요. 그 날 어떠한 교단도 하나님의 노여움 안에서 강제로 적그리스도 지배하에 놓여집니다. 그것은 소련과 중국의 교회가 무신론 공산주의 하에서 박해를 받는 날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공산주의에 지배된 교회는 적그리스도적인 교리를 강요 받지만, 그와 같은 강제가 배교의 교회에 행해집니다.

1:17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 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 같이 될지라

1:18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

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분노가 교회에 부어질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날에 주의 날이 도래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는 짐승의 나라 라든지, 반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것입니다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날은 배도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물론 그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심판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필적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첫 강림의 날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날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고 했습니다만,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제자를 비롯한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날에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 재림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종말의 주님의 뜻을 행해집니다.

- 이상 -

예수 재림의 날

최근 토요일 집회 때에 잠언 7장으로 '교회'의 비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라고 이름이 붙으면 어디에서든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예수님의 구약의 마지막 때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끝에도 두 종류의 교회로 구분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에 붙는 교회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교회, 말하자면 성령의 음성을 무시 하는 교회입니다. 올해 4월호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였고 최근에도 그러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 약간 중복될지라도 거듭 이야기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소리 마라! 싫증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세상의 흐름은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장황하다" 또는 "귀찮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이해력이 별로 좋지 않거나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라며 성내시는 분도 많을지도 모릅니다만, 잠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호의와 총명을 얻어라"** 라는 말도 쓰여 있는 정도이니, 그것은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해력이 나쁘거나 건망증이 심한 것으로 끝난다면 몰라도, 심하면 망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즉 영원한 생명에서 빗겨져 나가버릴 위험성에 관한 것은 반복 또 반복하며 몇 번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소중한 것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게다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만, 귀찮으시면 그러한 것에 양해와 이해를 부탁 드리며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마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 선택'이라고 말하면 신자가 된지 얼마 안된 기독교인들은 상관 있겠지만, 벌써 신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곳에 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종말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러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의 종말의 시대, 지금까지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때입니다. 소위 악은 선으로, 선은 악으로 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그 외의 여러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착착 진행되어 갑니다. 전도서에는 오래된 교회는 부패해질 것 임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교회가 배교의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믿는지의 여부는 개개인의 판단일 수는 있으나, 저 개인의 말을 드리자면, 바로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회 선택, 즉 교회에 있어서의 음미는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 선택의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① 성경 말씀에서 메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시대는 불행히도 많은 교회가 교리나 해설서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천주교에서는 교리가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신교에서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환란전 휴거설'도 그렇습니다. 환난 전에 올려진다면 만약 정말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 교리를 꼭 증명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말씀을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과 모순되지는 않는가? 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듣고 확인해 나가야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비유의 해석을 하는가

이것도 재차 말씀 드려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는 많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

"예수님은... 비유에 의존하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없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비유의 해석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의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입니다. 또한 사적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베드로후서의 편지에 적혀있는 '사적 해석'을 '영적 해석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 부분만을 참조하지 않고 성경 곳곳 부분을 참조하여 이해를 돕고 메시지를 전한다" 라는 것입니다.)

③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이것도 반복되며 말하고 있듯이,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또한 말씀의 대부분은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종말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을 때에, 시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덧붙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주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2:56) 그러므로 지금이 어떤 시대이며 종말을 앞두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④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 하는가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은혜' 이것이야말로 강조되어 가지만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과 저주에 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은 저주와 심판에 대한 기술이 단연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목사가 자주 말씀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 밖에 말하지 않는, 즉 하나의 좋은 것만을 말하고 반면 재앙이나 나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메시지가말로 '이단'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판에 대해 이해하지 않은 채 걸어 간다면, 죄와 회개 (방향 전환)의 자각과 실천이 없는 상태의 행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배교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대해 전부다 써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것에 입을 닫는 교회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⑤ 성경말씀에 벗어나있지 않는가

종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거짓말과 같은 점점 거짓으로 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 (틀린 교사나 목사 그리고 선지자)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환란전 휴거설'을 주창하는 교사, 목사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환란시대이다, 하지만 그 전에 기독교인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대비할 필요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환란을 위한 준비는 불필요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도 환란시대에 있어서 준비를 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란시대의 준비에 대해 재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말씀을 일탈하고 있거나 한 쪽이 빠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심판하지 않고 모두 천국에 간다라든지 또 한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여하튼 괜찮아, 혹은 우리에게 지옥은 없다, 가톨릭과의 합동도 OK, 동성애 허용과 복음의 전반적 이해 등이 그것입니다. 지금 언급한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교회는 주의해야 한다, 아니, 논외입니다. 이들은 모두 '누룩(죄)'이 들어간 교리입니다. 이러한 것을 매주 예배 때마다 듣고 있으면 영적으로 이상해져 갑니다. 이전에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잘난 척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간신히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든 탈출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첨가물이 들어간 것만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장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서서히 몸이 별집 되어가지는 않을까요? 또는 치우친 식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영양 부족이 되어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겠지요. 누룩이 들어간 메시지나 영적인 문제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교활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위함을 잘 정리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침투시켜 갑니다. 미량으로 조금씩이라서 좀처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상한 것 투성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중요한 것이 이야기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록 소량일지라도 이상한 교리를 계속해서 받아가면 그것이 쌓여 갈 때 영적으로 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말씀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어긋나 영적으로 치우쳐 가기도

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그때그때 음미할 필요가 있고, 말씀과 전혀 다른 것으로 판단되면 거기에서 멀리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괜찮아, 비록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된 교리를 배우니까"이라고 말하는 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 드리자면, 양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양립이 가능하면 저 자신도 그런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는 "교회를 나가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위한 올바른 결론을 가져 왔습니다.

이상, 오늘은 '교회 선택'의 포인트에 대해 생각난 점을 적었습니다. 만약 다니고 있는 교회가 위의 설명에서 추천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다면,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교회, 말하자면 심판 받는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음미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과 잘 맞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참견일지도 모릅니다 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을 어디까지나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좋은 나쁜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꼭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빕니다.

-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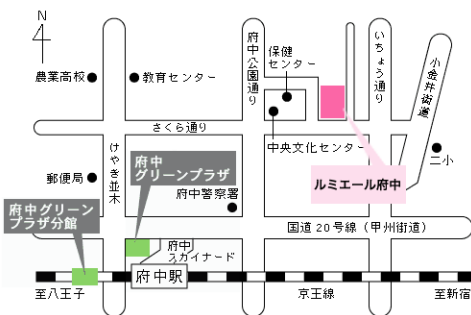
<알림 코너>

● 렘넌트 그리스도 교회 주일 예배:

오전 10:30-12:30, 오후 14:00-16:00

장소: 도쿄 게이오 후추 역전, 후추 그린 플라자 본관 (tel 042-360-3311)

위치의 URL: http://www.fuchu-cpf.or.jp/green/access/map_02.html



● 제 31 회 계시록 세미나 by 예레미야

요한 계시록, 다니엘 등 종말에 관한 토픽을 설명하는 세미나.

홋카이도에서, 히로시마에서, 열렬한 기독교인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장소: 후추그린플라자(府中グリーンプラザ本館) 본관 강습실(7층) 위치는 위 그림으로 확인.

일시: 2013년 11월 10일 (일) 오후 6:00-8:30

비용: 무료 입장, 단 교재비 1000엔 (당일 징수)

정원: 20명 (선착순 신청 순서. 만원대로 마감)

주최: 렘넌트 그리스도 교회 (tel 042-306-5002)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이름, 주소를 기재 후, 세미나 참가 희망 신청하십시오.

Fax: 020-4623-5255 e-mail: truth216@nifty.com